

정답표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④

정답률

정답률		문항 수
★★★	정답률 30% 미만 예상됨	5
★★☆	정답률 60% 정도 예상됨	10
★☆☆	정답률 80% 정도 예상됨	5

01 [어휘] 정답 ④ ★★★

해설 직장에서 ‘어떤’ 늦은 도착이 동료들의 불만을 유발하여 필자가 이에 관한 메일까지 보내는 것일지 생각해보자. ‘계속해서 또는 거듭되는’ 지각 때문에 불만이 일어났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repeated가 적절해 보인다. recurrent는 ‘re=again, cur=to run’의 조합으로, ‘다시 일어난다, 되풀이되다’의 의미인 동사 recur의 형용사형이라서 ‘재발하는, 되풀이되는’을 뜻해 정답은 ④이다.

해석 나는 이 이메일을 당신에게 써야만 한다는 것이 염려된다/ 직장에서 당신의 되풀이되는 늦은 도착(지각)에 관하여/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을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어구 concerning ~에 관해 recurrent 되풀이되는; 재발하는 discontent 불만, 불평(content 만족감)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deny 부인하다) reckonable 짐작 가능한; 계산할 수 있는(reckon 간주하다; 계산하다) unjustified 근거 없는(justify 타당함을 보인다; 정당화하다)

02 [어휘] 정답 ⑤ ★★★

해설 밑줄을 포함하는 문장의 앞 문장은 아이가 자존감이 있으면 더 성공한다는 것이 요지이고, and 이하에서도 어려움들이 뿔겨져 나간다고 했으므로, 밑줄 친 단어를 모르더라도 맥락상 부정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따라서 ④는 부적절하며, 과제들이 더 극적으로 흐른다는 것도 어색하므로 ②도 배제된다. seam은 천 따위의 솔기나 이음매들을 의미하므로, ~이 없음을 의미하는 접미사 less가 붙어 이음매가 없다는 뜻에서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원만하게, 부드럽게’를 뜻하는 ⑤이다.

해석 일단 아이의 자존감이 적절한 상태이면, 그것은 그 이상의 성공에 불을 붙일 것이다. 과제들은 보다 끊어짐 없이(매끄럽게) 진행되고 어려움들은 뿔겨져 나간다.

어구 self-esteem 자존감(esteem 존중) in place 적절한 상태인 kindle 불붙이다 flow 술술 진행되다; 흐르다 seamlessly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bounce off 뿔겨 나가다 concretely 구체적으로(concrete 구체적인)

03 [구동사] 정답 ③ ★★☆

해설 엄격한 복장규정을 가진 회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spell과 out의

개념을 활용하자. 철자를 빼놓지 않고 모조리(out) 쓴다는 의미에서 spell out은 ‘~을 분명히 설명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해석 그 회사는 매우 엄격한 복장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분명히 설명한다/ 당신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 ① 그것을 주의 깊게 검사하다
- ② 그것을 애매한 것으로 만들다
- ③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다
- ④ 그것을 친절하게 부탁하다
- ⑤ 그것을 개인적으로 명령하다

어구 spell out 분명히 설명하다 obscure 가려진; 애매한(cure=cover)

04 [독해_빈칸완성, 어휘] 정답 ② ★★★

해설 빈칸 부분에서 ‘정직성과 _____ 용기에 대한 증거’라고 정직성과 용기를 병렬로 연결했으므로 일단 빈칸에는 부정적인 어휘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③, ④, ⑤는 배제된다. 바로 앞 문장으로 가면 작품이 강력한 결의를 증명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정도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ubiquitous의 ubiq는 everywhere처럼 ‘어디에나 있는’이라는 뜻이라서, 어디에나 있는 용기라는 말은 맥락상 적합하지 않다. unflinching의 flinch는 ‘주춤하다, 물러서다’라는 뜻의 동사라서, 접두사 un(=not)이 붙어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의 의미를 표현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해석 이 전시에서, 그 예술가는 분쟁의 본질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나타낸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감정의 힘과 도전적인 거침이 있다/ 주제의 선택과 처리에 있어. 그 작품은 강력한 결의를 증명한다/ 그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를 말하려 함에 있어/ 그녀의 인생에서 이 시기에. 그것은 그녀의 정직성과 그녀의 ② 물러서지 않는(단호한) 용기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어구 exhibition 전시(exhibit 전시하다, 내보이다) Middle East 중동 rawness 거침; 날 것(raw 날것의, 익히지 않은) determination 결의, 결심 take on 떠맡다, 책임지다 controversial 논쟁적인 testament 증거 integrity 정직성; 고결(in=not, tegr=touch)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unflinching 물러서지 않는 flattering 아부하는(flatter 아부하다) hypocritical 위선적인

05 [어휘] 정답 ① ★★★

해설 ‘끔찍한 범죄 현장들이 진실을 _____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따라서 빈칸에는 뒤에 병렬로 연결된 toV에서 보여주다(show)와 비슷한 의미의 타동사가 들어가 진실을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맥락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impair는 ‘im=not, pair=same’의 조합의 동사 impair의 명사형으로, ‘훼손시키다’라는 뜻이라서 부적절하므로 ③은 배제한다. ① divulge는 ‘dis=apart, vulge=people’로 구성된 단어로 ‘~에게 누설하다, 폭로하다’의 의미이므로 정답이다. ② capitulate은 ‘머리(cap)를 내놓고(lat=carry)’라는 뜻에서 ‘항복하다, 포기하다’를 의미하므로 옳지 않고, ④ meander는 ‘굽이쳐 흐르다; 헤매다’를 뜻하는 자동사라서 정답일 수 없다. ⑤ precipitate은 ‘급하게 진행시키다(=hasten)’라는 뜻이다.

해석 그 끔찍한 범죄 현장들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들 뒤에 남겼던/ 충분했다/ 그들의 진실을

① 폭로하고 Joubar 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기에/ 그 인근의 모든 것이 테러리즘의 행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구 divulge 누설하다, 폭로하다 capitulate 항복하다; 포기하다 impair 훼손시키다
meander 굽이쳐 흐르다 precipitate 급하게 진행시키다

06 [구동사] 정답 ② ★★☆☆

해설 '인사부가 직무분석을 _____'라는 말을 완성해야 하므로, 빈칸에는 '수행하다, 담당하다' 등의 말이 필요하다. 직무분석을 떼어낸다거나(pull out), 제거한다는(get away) 말은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일단 ①과 ⑤는 배제한다. ③ get out은 '어렵게 말을 꺼내다; 출판하다'의 의미라서 적합하지 않다. ②는 '나르다'를 뜻하는 carry에 completely의 뜻인 out이 결합하여 완전히 나른다는 의미로부터, '수행하다, 완수하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정답이다.
해석 인사부는 직무분석을 ② 수행한다./ 그리고 그것은 각 직무의 요소들과 특성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이다.

어구 personnel department 인사부 job analysis 직무분석 pull out sth 떼어내다 carry out sth ~을 수행하다, 완수하다 get out sth 어렵게 말을 꺼내다; 출판하다 put out sth 내놓다 get away sth ~을 제거하다

07 [문법_태, 타동사, 연결동사, 수일치, leave sb toV] 정답 ① ★★☆☆

해설 ① 연결동사 appear 뒤에 형용사 unsolvable이 보어로 온 것은 맞지만, appear는 타동사가 아니어서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be appeared는 appear이 되어야 한다.
② discuss는 무엇을 상의하는지를 바로 대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discuss sth with sb 구조가 바르게 쓰였다.
③ 연결동사 become 뒤에 보어로 형용사 serious를 쓴 것이 옳다.
④ who가 수식하는 것이 앞의 명사 others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복수형 동사 were를 제대로 썼다.
⑤ leave sb toV의 수동태로서, 대상어가 어떤 활동(toV)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의미에서 toV를 쓸 수 있으므로 옳다.

해설 문제들은 ①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타인들과 함께 ② 우리의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혼자일 때, 문제들은 보다 ③ 심각해진다.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의견들을 얻고 해결책들을 찾는다. 한 실험이 한 그룹의 여성들로 수행됐다/ 삶에 있어 낮은 만족도를 지녔던. 여자들 중 일부는 비슷한 처지에 ④ 있던 타인들에게 소개됐다./ 그리고 여자들 중 일부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⑤ 처리하도록 내버려뒀다. 타인들과 상호작용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걱정거리들이 55퍼센트까지 줄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그들 스스로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개선도 보이지 않았다.

08 [문법_have no choice but toV, 접속사, 태, 수일치, 부사] 정답 ② ★☆☆☆

해설 ① 'with 명사 전치사구'로 주절에 동반하는 상황을 잘 나타냈고, have no choice but toV는 '선택권이 없다/ toV밖에'라는 뜻에서 '~할 수밖에 없다'를 의미하므로 옳게 쓰였다.
② whether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이든 아니든'의 의미이다. 내용상 실수를 했고 일을 망쳐서 그가 사과해야 했다는 인과관계를 이루므로, 접속사의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③ 전치사 towards는 특히 영국영어에서 잘 사용되며,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나타내므로 맞고, oneself에 의해 주어인 The steps toward the goal가 연습되는 것이므로 옳다.

④ 주어는 were 뒤에 오는 명사 jobs이므로 동사의 수는 복수로 옳고, nearly가 '거의'라는 의미라서 뒤의 숫자가 거의 얼마 만큼인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맞는 문장이다.

⑤ 'the number of sth'은 '~의 수'를 말하여 주어가 the number이고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구에서 단수형 has는 옳다. 주어절에서 who는 women을 수식하여 총을 소지한 여성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므로 그에 맞게 동사도 복수형 own으로 알맞게 썼다. rise는 주어가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자동사이므로 옳바르다.

해석 ①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그 남자는 거기에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② 실수들이 만들어졌고 일들은 잘 되어가지 않아서, 그가 사과해야만 했다.

③ 그 목표를 향한 단계들은 연습될 수 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해.

④ 거의 560만의 빈자리(일자리)들이 있었다/ 5월 말에.

⑤ 총기를 소지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지난 10년에 걸쳐.

어구 have no choice but toV ~할 수밖에 없다 work out 잘 되어가다

09 [문법_형용사절] 정답 ⑤ ★★☆☆

해설 □빈칸 뒤에 빠진 명사가 없는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일단 스스로 명사 기능을 하며 불완전한 절이 뒤따르는 what은 옳지 않으므로 ①은 제외한다. 빈칸 앞에는 장소명사 laboratories가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나 전치사+관계대명사인 in which가 와서 생명의 필수요소들 일부가 실험실들 안에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해석 과학자들이 말했다/ 필래 우주 탐사기가 그 이론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모았다고/ 혜성들이 우주의 실험실들로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 ⑤ 그 (실험실들) 안에서 생명에 대한 필수적 요소들의 일부가 한데 모인.

어구 space probe 우주 탐사기(probe 조사, 탐사기; 조사하다, 탐사하다) comet 혜성 cosmic 우주의

10 [문법_시제, 수일치, 대명사, know sth about sth] 정답 ② ★☆☆

해설 ① 주어가 researchers로 복수이므로 동사 have를 쓴 것이 옳고, 알아냈다는 것을 활동의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상으로 표현한 것에 문제가 없다.

② experiences의 주어는 individuals로 복수라서 단수형을 쓴 것이 옳지 않다. -s를 빼야 하므로 정답이다.

③ those who는 people who와 같은 뜻으로, 비교대상을 대명사로 쓸 때 ~인 사람들을 those who로 시작하곤 하므로 적절하게 쓰였다.

④ 등위접속사 and로 앞서 나온 동사 decrease와 병렬구조를 이루며 tend toV절에 걸린다. 주어가 individuals이므로 동사의 형태 옳고, reduce는 타동사로 쓰여 주어가 무엇을 줄이는지를 대상으로 쓰므로 알맞다.

⑤ know sth about sth 구조로 how절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하여 know의 대상어 역할을 what이 하고 있다.

해석 카네기 멜론대학의 연구원들이 ① 알아냈다/ 온라인에 주당 비록 몇 시간이라도 소요하는 개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고독을 ② 경험한다고/ 인터넷에 시간을 덜 쓰거나 또는

쓰지 않는 ③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또한 발견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들이 그들의 의사소통을 줄이는 경향이 더 있다는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범위의 크기를 ④ 줄이는 경향이 더 있다는 것을. 이 결과들은 반직관적이다/ 우리가 아는 ⑤ 것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터넷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
 어구 depression 우울(de=down, press 압박하다) circle 범위, 영역 counterintuitive 반직관적인(counter=반대의, intuitive 직관적인)

11 [회화] 정답 ④ ★☆☆

해설 빈칸은 비행 후 시차로 고생했냐는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다. 빈칸 이후에 A가 시차 이야기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화제로 넘어가므로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의 ④가 적절하다. 시차로 고생했다는 내용의 ⑤가 정답이라면 이어지는 A의 대화에서 유감이다, 고생했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A는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므로 ⑤는 알맞지 않다.

해석 A: 비행 어땠습니까?

B: 좋았는데 좀 긴 비행이었죠.

A: 시차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나요?

B: ④ 그건 나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는 않네요.

A: 자, 그러면 우리 회의실로 갈까요? 최고위자가 당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① 나는 그것에 (대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② 그건 문제 밖에 있어요(=불가능하다)

③ 나는 그것을 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⑤ 첫날밤은 항상 망가지죠/ 그것에 의해

어구 jet-lag 시차증, 시차로 인한 피로

12 [문법_시제, stop Ving] 정답 ⑤ ★★☆☆

해설 ① 주어진 우리말은 중국에 대한 한국 자동차수출 감소라고 했는데,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므로 틀리다.

② that절의 동사가 decreased로 단순과거라서 감소했다는 과거형이 되므로, 감소해오고 있다는 우리말의 내용과 다르다.

③ stop Ving를 쓰면 감소하는 것이 멈췄다는 의미가 되어 우리말의 내용과 반대된다.

④ 해석해보면 작년에 계속해서 감소했다는 의미라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는 우리말 내용과 다르다.

⑤ since로 작년부터라는 뜻을 잘 표현했고, 현재완료진행형을 써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활동이 진행 중임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13 [독해_논리성] 정답 ② ★★☆☆

해설 제시문의 요점은 한국인들은 영어교육 불균등이 직업과 소득에 타격을 준다고 믿는다는 것이고, for example로 시작하므로 이 예시가 놓일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각 부분의 요점을 정리해보자. 도입부는 영어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 가정 소득과 과외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 남, ① 뒤는 영어 양극화는 영어 실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 ② 뒤는 이래서 한국 부모들이 영어 교육에 막대한 돈 씀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① 뒤의

문장에서 ②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어색한 것이 드러난다. 영어 양극화가 영어 실력 말고도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이런 이유로 영어 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바로 전개되므로 제시문이 ②에 들어가서, 영어 양극화가 영어 실력의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 아님→ 한국인들이 영어 불균등이 미래 직업과 소득에 영향 끼친다고 믿음→ 이런 이유로 한국 부모들이 사교육에 막대한 돈 지출한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매끄럽다.

해석 이른바 영어 양극화는 한국 사회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의 능숙함은 달려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의 가정들이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과외 교육을 그들이 받고 있는지에. ① 문제는 영어 양극화가 그들의 영어의 능숙함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믿는다/ 영어교육의 불균등이 직업 전망과 소득의 불균등으로 이어진다고. ③ 그것이 한국 부모들이 엄청난 양의 돈을 영어 사교육에 쓰고 있는 이유이다. 그것이 또한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있는 이유이다/ 그들의 가족들을 영어권 국가들로 보내는/ 그들의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하여. ④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그림자를 생각하면,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 양극화를 좁히는 (조치). ⑤ 어구 inequality 불균등, 같지 않음(equal 같은) so-called 이른바, 소위 alarming 걱정스러운, 놀라운 proficiency 능숙, 숙달 extra-curricular education 과외교육 wild-geese 기러기 polarization 양극화(polarize 양극화하다)

14 [독해_논리성] 정답 ③ ★★☆☆

해설 각 부분의 요점을 잡아 흐름에 어긋나는 진술을 찾아보면, 도입부는 얼굴의 부분을 사용한 감정표현, ① 뒤는 턱을 내리고 입을 벌린 상태는 놀람 표현, ② 다음은 커진 눈은 말로 “와”하는 것과 같은 의도 전달, ③ 얼굴의 표현들이 대화 조직 구조로 향함, ④ 비언어적으로 혐오감 표현하려면 코 주름을 짓거나 윗입술 올리면 됨, ⑤ 눈썹 올리면 이해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 이렇게 정리해보면 모든 문장들이 도입부의 설명처럼 얼굴 특정 부위들을 사용해 감정을 나타내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③만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답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얼굴의 상징들은 보내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또는 그녀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은 실제의 감정표현들과는 다르다/ 그것들이 보통 더 길거나 혹은 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표현보다/ 그리고 행해진다/ 얼굴의 단지 어떤 부분만을 사용함으로써. ① 당신이 당신의 턱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입을 벌린 상태로 둘 때, 당신은 어찌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② 커진 눈들은, 다른 이목구비들의 놀란 기색 없이도 어찌면 동일한 의도를 수행할 수 있다/ 언어인 “와”처럼. ③ 얼굴의 표현들은 향해진다/ 나누고 있는 대화의 조직 구조 쪽으로. ④ 만약 당신이 비언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언급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코 주름(짓는 것)이나 당신의 윗입술을 올리는 것이 당신의 메시지가 이해되게 할 것이다. ⑤ 때때로 한쪽 또는 양쪽 눈썹(들어올리기)은 한층 더 전달할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하다(이해되지 않아서)” 혹은 “나는 그것을 의심해(믿지 않아).”라는 것을.

어구 emblem 상징(em=in, bl=throw 안에 던져진 것) in that ~라는 점에서 jaw 턱 dumbfound 말이 안 나올 만큼 놀라게 하다 feature 이목구비 일부분 verbal 언어의, 말의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verb=word) comment on sth ~을 언급하다, 의견을

드러내다 get sth across ~이 이해되게 하다 eyebrow 눈썹 puzzled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당혹스러운

15 [독해_논리성] 정답 ④ ★★☆☆

해설 제시문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각 문단의 연결어나 지시사들을 통해 논리관계를 밝혀내자. 제시문의 요점은 80퍼센트의 미국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 제품 구매를 중시하며, 개인과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A)는 This label로 시작하므로 첫 문단으로 부적절하고 (B)도 These people로 시작하는데, 제시문 마지막 문장이 미국 소비자의 초점에 대해 말하므로 these가 지칭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C)가 첫 문단으로 와서, 제시문에서 밝힌 소비추세를 *conscientious consumerism*라고 부른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C)의 마지막이 LOHAS로 끝나므로 (A)의 This label이 이 로하스를 칭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음 문단은 (C)가 되는 것이 맞다. (B)의 These people이 (C)에서 말한 로하스족을 받아 이들이 친환경 제품 시장에 거대한 시장이 된다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본문은 건강과 지속적 성장 추구의 생활방식 혹은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로하스’를 다룬 글로, 특히 이들의 특징인 친환경적 소비 형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해석 한 조사에서, 10명 안에서(중에서) 8명의 미국 소비자들이 말했다/ 그들은 믿는다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들과 친환경 기업으로부터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초점은 결합하고 있다/ 지구의 건강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과 함께.

(C) 일부 분석가들은 이 새로운 가치관을 *양심적인 소비자운동*이라 부른다. 다음은 분명하다/ 상당한 수의 미국의 소비자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종종 LOHAS라 불리는 것으로 — “건강과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머리글자인.

(A) 이 문구는 사람들을 언급한다/ 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조된 상품들을 원하고, 그들이 그들의 개인의 발전과 잠재력이라 여기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

(B) 이 사람들은 거대한 시장을 제시한다/ 유기농 식품,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기기들, 그리고 하이브리드(친환경) 자동차들과 같은 제품들에 대한. 다음이 추정된다/ 그들이 미국 성인의 16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거나 3백 5십만 명을 이룬다는 것이.

어구 green 친환경적인 sustainable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see sth as sth ~을 ~으로
여기다 represent 제시하다; 대표하다 organic 유기농법의,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appliance 가정용 기기 hybrid car 친환경 자동차(휘발유와 전기 병용) conscientious
양심적인(con=with, sci=know) consumerism 소비자운동 sizable 상당한, 꽤 많은
acronym 머리글자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16 [독해_주제] 정답 ③ ★☆☆

해설 글의 첫 머리에 To the Tenant를 보면 세입자에 대한 통지문임을 알 수 있고, 첫 문장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거통지가 주제임이 드러난다. 선택항에서 이와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해석 11호 세입자에게:

임대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불이행으로 인해, 벨필드 빌딩 관리측은 퇴거의 통

지를 발부합니다. 몇 차례의 경고문들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의 음식점이 내뿜어온 악취에
 관해. 귀하의 임대계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악취를 그의/그녀의 점포 너
 머로 보낼 수 없음을. 귀하는 건물 점포를 비울 것이 요구됩니다/ 2015년 9월 20일까지.
 순응하지 않음은 소송을 야기할 것이며, 그것은 건물로부터 세입자에 대한 물리적 철거를
 포함합니다.

어구 tenant 세입자, 임차인 failure 불이행 uphold 유지하다; 떠받들다 rental agreement
 임대계약 eviction 퇴거(vict=to conquer) odor 악취, 냄새 emit 내뿜다, 방출하다
 (e=out, mit=so send) state 명시하다 premise 점포; 부동산 vacate ~을 비우다, ~
 에서 퇴거하다 property 건물 conform 따르다, 순응하다(com=together) legal
 action 소송 removal 철거, 추방

17 [독해_빈칸완성] 정답 ② ★★☆☆

해설 빈칸 앞은 예술가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창조한다는 내용이고, 빈칸 다음은 호감에 대
 한 기대가 창조의 동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인정과 호감을 받는 것이 창조의 이유
 라는 것이 주제임이 파악되고, 빈칸 앞뒤 내용은 순접관계이며 앞에서 말한 논지를 빈칸
 뒤에서 상술하며 강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in fac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역접
 관계의 내용이 아니므로 ①은 배제되고, 앞 내용에 대한 예를 든 것이 아니므로 ③도 틀리
 며, 내용상 ④ 드물게도(rarely), ⑤ 불행히도(unfortunately)는 부적절하다.

해석 하나의 예술작품의 탄생은 열렬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오로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시도에 완전히 홀로 집중할 때/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들의 완
 성되지 않은 작품들을 누구에게도 보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최종의 단계
 로서, 대중에 의해 공유되어야만 한다./ 그 탄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단지 그
 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품들이 타인들에 의해 인정받고
 진가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② 사실상, 호감을 향한 기대는 우선 그들이 창조하고 싶게 만
 드는 것이고, 창조의 과정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 작품이 관심을 찾을 때까지. 결국, 예술
 작품은 존재한다/ 호감을 받기 위해/ 논쟁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구 endeavor 시도, 노력 piece 작품 approval 호감; 찬성 in the first place 우선

18 [독해_빈칸완성] 정답 ④ ★★☆☆

해설 “전쟁이 계속될수록 _____”라는 내용이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however가 있으므로
 앞 문장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애도를 표현하려고 검은색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반하는 내용이 전개되어야 하고 빈칸 뒤의 문장에서 일부 여성들만이 검은 색으로 의복을
 절제했고, 이내 다른 색깔들도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진주를 착용하는 등 더 자유로운
 복장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따라서 빈칸에는 복장규정이 more relaxed됐다는 ④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해석 영국에서 사람들은 1910년의 하루를 기억했다/ 연대기에서 “블랙 애스콧(애스콧 경마장
 서 개최되는 사교계 행사)”으로 전해진. 에드워드 7세(의 죽음)를 추모하여,/ 막 사망했었
 던,/ 그 경기장으로 가는 모든 방문자들은 우아한 검은 의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것은 그
 10년간의 패션 사건이었다. 이 예를 마음이 새기며, 그 사회의 미망인들은 정당하게 취급
 하려고 노력했다/ 전시(戰時) 동안 애도의 요구에 대해. 그들은 검은 색을 입기를 고집했다
 / 그들의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그 전쟁이 더 길게 계속될수록 그리고 더 많은 희생

자들을 그것이 맞아 갈수록, 그러나, ④ 복장규정은 더 많이 완화됐다. 오직 어느 정도의 여성들만 꼬박 한 해 동안 검은 색을 입거나 그들의 보석류를 까만 흑옥으로 제한했다. 회색과 심지어 담자색(연한 자줏빛)이 이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고 미망인들은 진주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외출했을 때.

- ① 그들의 패션은 덜 사치스러워졌다
- ② 그들의 복장은 더 수수해졌다
- ③ 그들의 복장은 덜 비격식적이어졌다(=격식을 더 차리게 됐다)
- ⑤ 그들의 패션은 더 우세해졌다

어구 annals 연대기, 연보 in memory of sb ~를 추모하여 bear sth in mind ~을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 do justice to sth ~을 정당하게 취급하다 mourning 애도, 비탄 wartime 전시(戰時) jet 흑옥(黑玉); 칠흑 mauve 담자색, 연한 자줏빛 conservative (복장 등) 수수한; 보수적인(serve=keep)

19 [독해_빈칸완성] 정답 ① ★★★

해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도,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어서 여전히 _____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실상 우리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바로 앞 문장을 더 읽어보면, 인간의 전부를 알려고 하는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선택항으로 가보면, enigma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master는 정통한 사람이나 숙련가를 의미하므로 우리 자신이든 모든 이에 대해서든 master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논지에 반하는 말이므로 ②와 ⑤는 제외한다. ③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전히 모든 이에 대해 no one이라는 내용이 되어 어색하므로 배제하고, 빈칸 앞이 ourselves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ourselves가 들어가 있는 ①을 답으로 고른다. enigma는 수수께끼,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라서, 빈칸에 ①이 들어가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맥락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석 우리 스스로를 알고자하는 그리고 우리의 동료를 알고자하는 갈망은 모든 심리학의 주요동기이다. 그러나 그 욕망은 인간의 전부를 아는 것이어서, 그의 가장 내밀한 비밀(같은), 그 욕망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다/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설령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1000배 더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① 우리 자신에 대해 수수께끼로.

- ② 우리 자신에 대해 정통한 사람
- ③ 모든 이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 사람
- ⑤ 모든 이에 대해 정통한 사람
- ④ 모든 이에 대해 수수께끼

어구 longing 갈망 mainspring 주요동기, 원동력(spring 도약하다; 원천) inasmuch as ~이므로 innermost 가장 내밀한, 가장 깊은 fulfill (욕구 등) 충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enigma 수수께끼 master 정통한 사람

20 [독해_빈칸완성] 정답 ④ ★☆☆

해설 빈칸이 있는 문장이 역접사 but으로 시작하므로 빈칸 앞을 함께 보면 “출생률이 올라가고 대가족이 유행했으나 동시에 _____”라는 내용을 완성해야 한다. 빈칸 뒤에 바로 이

혼 증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가족해체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선택항을 보면 ① 여성들이 의학에서 소수임, ② 여성 권리 축소, ③ 여성의 역할 인정받기 시작, ④ 가정 불행의 조짐들, ⑤ 여성에게 개방된 직업은 저임금으로 요약되므로 ④가 정답이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변화한 영국 여성의 역할과 이혼과 같은 가정 문제를 다룬 글이었다.

해석 2차 세계대전(1939-45) 동안, 영국의 많은 여성들은 현장과 공장에 일하러 갔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그들의 돌아오도록 장려됐다/ 부인과 어머니 같은 가정의 역할들로. 출생률은 급격히 올라갔고 대가족들이 유행됐다. 그러나 동시에 ④ 가정의 불행의 조짐들이 있었다. 이혼은 네 배가 됐다/ 전쟁 전 1년 당 8,000건에서 1950년에 32,000건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정신과 의사와 결혼생활 상담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 ①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에서 소수였다
- ② 여성의 권리가 극적으로 축소됐다(줄어들었다)
- ③ 여성의 역할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 ⑤ 여성에게 개방된 직업의 대다수의 직업은 저임금이었다

어구 domestic 가정의; 국내의 birth rate 출생률 quadruple 네 배가 되다; 네 배의 (quadr=four)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psyche=mind) marriage guidance counsellor 가정생활 상담전문가 curtail 축소하다(tail=cut) indication 조짐(dic=say)